

더 나은 교육 공간으로서의 대학을 꿈꾸며

신효정*

대학은 교육 공간인가? 대학을 교육 공간이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활동 중에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활동이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교육이라고 뉘울 수는 없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은 수업을 비롯하여 온갖 강연회와 학회·집부·동아리 활동 등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학부를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느낀 점은 내가 정말 대학 교육을 ‘잘’ 받았는가 하는 아쉬움이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교육적 관계를 맺으며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무수한 지적 자극에 도전받고 자기를 단련하며 열정으로 기득 찬 성취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학점에 얹매이기보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마음 놓고 한 권의 책을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여유도 즐기면 좋지 않을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친밀하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진실한 학우(學友)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채로 세월을 흘려보내다보니 자연스레 리포트를 쓰고 있고 수업시간의 토론과 조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비단 나 혼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 같은, 좀더 제대로 된, 좀더 나은 대학교육에 대한 목마름이랄까. 그런 이런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런 와중에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재학 중.

‘학부생은 이런 강의를 원한다’라는 학생 연구 프로젝트 공모를 보고 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본의 게이오기주쿠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 대학교육의 얼굴인 강의(수업)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대학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는 어떤 수업이 좋았는지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토론을 통해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이 좋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의 사례를 연구해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수업의 선생님,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피드백만으로는 학생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성장의 모습을 풍부하게 포착해내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교육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팀에서 우수 강의로 선정한 ‘삶과 교육’ 강의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수 방법들을 분석하여 각각의 방법들이 의도한 교육적 효과나 의미들을 밝히고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확인하여 시사점을 이끌어내면, 학생들에게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 줄 수 있는 수업이 많아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특히 어려웠고 그만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필요로 했던 부분은 ‘교육적 성장’을 개념화하는 지점이었다. 그렇지만 팀원들과 함께 선행 논문들과 책들을 참고하여 읽고 토론하고 정리해나가는 작업이 엉으므로 뿌듯하게 마칠 수 있었다. 또한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수업 담당 선생님과 근스승,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의 즐거운 인터뷰 및 이미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작된 바 있는 우수 강의 CD를 녹취·전사하는 작업은 번거롭기는 했지만 재미있게 소중한 자료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게이오기주쿠대학과의 공동 연구 발표를 위해 영문으로 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이었

으나, 게이오기주쿠대학 학생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설렘에 더 커으므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공동 연구 발표는 멀티미디어 강의동의 원격 화상 회의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하며 게이오기주쿠대학과 우리 대학 학생들이 번갈아가면서 발표하였다. 일곱 팀이 각자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는 PPT 자료를 활용해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은 양측 모두 통역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일본이 자리적으로 아무리 가깝다고는 하나 외국 학생들과 마치 한자리에 있는 듯이 실시간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였고, 대학교육에 대해 다른 나라의 학부생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 우리 대학에서 준비한 연구는 ‘외국 유학생들의 적응 과정 연구’, ‘교육적 성장을 위한 수업 사례 연구’, ‘서울대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의 요인 조사’ 등의 세 가지였고, 일본에서는 ‘대학생들의 세계화에 관하여’, ‘사회의 지도층을 육성하는 교육’, ‘대학의 이상적인 교양 교육’, ‘대학교육 개선 방안’ 등 의 네 가지였다. 일곱 팀의 연구를 차례로 듣고 사이사이에 각 주제들에 관한 의견 개진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단편적이나마 일본의 대학교육 체계와 일본 대학생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적 시도와 여러 재미있는 주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사전에 게이오기주쿠대학과 우리 대학이 토론회에서 발표할 연구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바가 합의되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 대학의 연구들은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 방법적인 측면이나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일관적인 형식을 갖추려고 노력한 반면, 게이오기주쿠대학 학생들의 경우는 저학년 학생들이 듣는 ‘Academic Skills’ 수업의 일환으로 한두 페이지 분량의 자기 생각을 적어온 데 지나지 않았다. 물론 PPT 자료를 준비하거나 문헌 조사를

한 경우도 더러 있었지만, 연구를 실행하고 이를 발표한다기보다는 대학 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테크닉을 연습하는 것 같다는 인상이 강했다. 또한 사전에 각자의 발표문을 교환하여 미리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이어진 토론에서도 각 나라의 사정을 확인하는 단편적인 정보 확인이나 연구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 외에 깊이 있게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다. 팀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게이오 기주쿠대학의 연구를 무척 기대하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약간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게이오기주쿠대학과의 공동 발표를 계획하고서라도 이번 연구는 학부생들이 원하는 강의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강의 평가와 같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학부생들이 생각하는 바를 직접 연구해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었다. 더 많은 학부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외국 대학의 학생들과도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교육 공간으로서의 대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의 역할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5